

[전라도]



(40) 김정길 前법무장관 <상>

■ 전라도 역사 이야기

-염주동

'웃 로비' 사건 증인들 말 달라 되레 커진 일

"웃 로비"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증인들의 말이 서로 달라 논쟁이 된 것뿐이에요"

박상천, 김태정씨에 이어 국민의 정부 3대 법무장관에 발탁, 웃 로비 특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장관직을 수행했던 김정길 전 법무장관의 회고다.

개천절인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의 개인사무실에서 김정길(70)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공직을 떠난 지 벌써 5년여. 하지만, 그의 얼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다.

국민의 정부 시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법무장관에 올랐던 그인 만큼 듣고 싶은 과거 이야기는 많았다. 당시 김태정 장관이 사퇴한 배경, 웃 로비 사건, 신승남 검찰총장 발탁과 김전 장관의 첫 번째 사임, 그리고 검찰의 피의자 구타 사건에 의한 두 번째 사임 등, 묻고 싶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대인은 항상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며 보통 사람은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논어'의 한 구절을 이야기하며 과거사를 더 이상 들추는 것을 꺼려했다. 웃 로비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마디만 하고 화제를 바꿔버렸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진실인지 아닌지를 걱정해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1937년 신안군 도조에서 태어나 도조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포사범학교 병설중학교에 입학했으나

국민의 정부때 법무장관 두번 할 만큼

김대중 前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받아



2000년 6월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국 비행청소년·저소득서민층 정보화사업 협력 조인식에서 당시 김정길 법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100만불 지원을 약속한 마이크로소프트 밀케이츠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자리 함께했다.

"국회에서 웃 로비 관련 특검제를 도입하려 하자 저는 장단점을 이야기하며 반대했어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나온 제도지만 오히려 더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2001년 5월 안동수씨에게 장관직을 물려줬다. 당시 검찰에 같은 호남 출신인 신승남 총장 체제를 구축하려는 정권의 의도에 따라 물려났다는 것이 법조계의 정설이다.

검사 시절 법·원칙에 충실히하다 보니

이젠 사람 만날 때 '결례 있었나' 묻게 돼

안동수·최경원씨로 이어지던 법무장관 자리는 1년 2개월 만에 다시 그에게로 돌아왔다. 2002년 7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길, 김홍업씨 비리 사건의 후유증으로 송정호 장관이 7월 6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장관에 재임명된 것이다.

그는 그러나 취임 직후 검찰인사에서 당시 이희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사건인 소위 '병풍'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유임시키면서 한나라당이 해임안을 제출하지만, 김풍사건으로 내내 곤욕을 겪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이 아닌 뜻밖에 사건으로 불과 4개월여 만에 낙마했다. 그해 10월 서울지검 강력부 소속 흥모 검사와 수사관이 살인사건의 조직폭력배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증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 에어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차례나 법무장관에 기용될 정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으나 인권을 최우선했던 '국민의 정부'에서 하필이면 '고문치사' 사건으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동네형국 염주 닮아 불교식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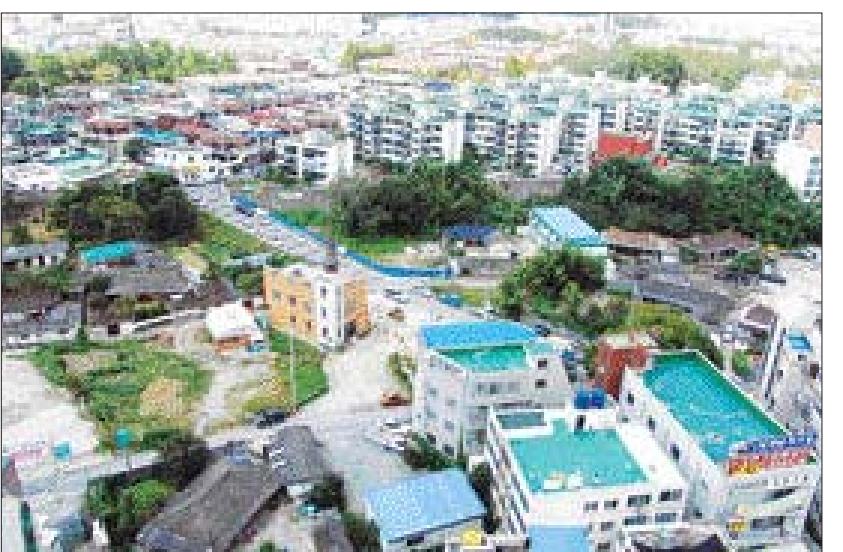
350년생 팽나무 3그루 靈樹

오는 8일 개막하는 제88회 전국체전의 주무대인 광주월드컵경기장으로 다가서면 '염주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염주동(念珠洞)은 법정동이나 행정동도 아니면서 운천동처럼 정식동처럼 여겨진다.

염주미들은 1912년 도천면(陶泉面), 1914년 효천면(孝泉面), 1935년 효지(孝池)면 주월리에 속했다. 주월리는 염주(念珠)와 월산(月山)마을에서 이름을 따왔고, 1955년 주월동이 됐다. 1995년 신설된 남구 관할이다가 1997년 염주동네 포함 주월리 일부가 서구 화정2동 소속이 됐다.

짚봉산(129m) 북녘 옵파지에 자리잡은 염주골은 불교관련 지명이 전한다. 동네 형국은 염주를 닮았다고 풀고, 기우제(祈雨祭)터였던 젯(짚)봉산은 '승나봉(僧樂峰)'으로 칭했다. 좌천봉은 북서쪽 능선으로 짚은골(深谷·심곡)재로 내려선 동네 뒷 등인 '대죽(大燭)'이고, 우백호는 남동쪽 자락으로 도감봉에서 이어진 '목탁(木鐸)' 빽뛰다.

반자고개 너머 남동쪽 월산마을 사이 지평이골(地平谷·지평곡)으로 오르면 '가사곡(袈裟谷·가사곡)'에 삼과 함께 '염주사(念珠寺)'가 있었다고 전한다. 1947년 나주 오씨 성별이 동자석, 삼층탑, 석등을 세우고, 옛 염주사를 잊는다고 '염불단(念佛壇)'



염주미를 전경.

을 마련했다. 20년 전 매립된 900번지 여성 두락 크기의 방죽을 '연화지(蓮花池)'로 칭하기도 했다.

입향자는 500년 전 현풍과씨로 본다. 이후 양과동에서 경주 죄씨가 들어왔고, 한양조씨에 이어 화순 도곡에서 함평이씨와 화정동에서 하동정씨가 이사 왔다. 1915년 사정(查定) 당시지적자료에는 한양조씨 11호를 비롯하여 함평이씨 5호, 경주최·충주박씨 각 3호, 하동정·곡부공씨 각 2호, 김·임·한씨가 각 1호다.

대지(垈地)소유자를 보면 876번지 조상원(趙尙元), 883번지 이사현, 872번지 최사진, 870번지 박하준, 853번지 정해두, 847번지 공준태, 877번지 김정언, 842번지 임자순, 850번지 한희답씨 등이다.

주월 경노당 최수홍(81)회장의 자료를 보면 고문서로 1800년 조정여(趙鼎呂)·1849년 조수권(守權)·1880년 조린상(蘭相)과 조학중(學重)·1891년 정순환(鄭淳煥) 교지가 전한다.

1970년대 말 화정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뤄지며, 70여 호의 시골 염주동 근처 까지 시가지가 형성됐다. 매화나무가 울창했던 원주민들은 현재 아파트로 둘러싸였다. 북쪽은 염주(道청)맨션·대주아파트, 남쪽은 금호·신동아·한양아파트, 동쪽은 화정주공아파트가 숲이다.

아직 20여 채의 옛집과 팽나무가 서 있다. 동네어귀 300년생과 가운데쯤 350년생 팽나무 3그루는 염주골의 영수(靈樹)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지 않고 청진디지털 기술로 듣는 맛사입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bogilgut.com

1588-8499 080-222-0100